

#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

### 전주시, 오늘 무관중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 통해 실시간 생중계

전주시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적 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춘다.

전주시와 로컬푸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4일 오전 9시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Jeonju)'를 무관중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국제회의는 관중 없이 치러지는 대신 유튜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적 환경 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푸드 대표와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슈만 등 지역와 전문가 20여명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대표가 연사로 나서 '코로나 이후의 기로에서'를 주제로 ▲안전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경제의 회복력 강화 ▲문화와 생태의 다양성 존중 등을 골자로 한 지역화

의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 호지 대표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역화의 비전을 제시한다.

기조강연이 끝나면 ▲사회적 금융·시민자산화의 적용 방안 ▲모두를 위한 먹거리 순환체계 만들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 정책 등 3개 세션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사회적 금융 분야 중 시민자산화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슈만이 연사로 참여해 북미 사례를 통한 지역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나상은 사람과 공간 이사장, 이경호 법무법인 더함 대표, 김선영 밴드파운데이션 사무국장, 서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성지영 연사가 각각 시민자산화 사례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역 먹거리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주 영속 농업 디자이너인 데이비드 홀름그렌, 이은수 서울 노원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홍명희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 사무국장이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격차를 줄이는 먹거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중기 전주시 농정총괄지문관, 김아영 (사)소비자의 정원 대표, 박현정 네발요정 카페 대표, 소희주 전주 우리먹거리협동조합 대표가 도시농업 가치 공유, 지역 먹거리 체계의 실천과제, 공동체 지원농업 활동 사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 정책을 논의하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매튜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시의회 의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어 정선철 삼육대 교수, 정수경 (사)어반베이스캠프 대표, 김정후 런던대 UCL 펠로우 교수, 윤병훈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허문경 전주대 교수 등이 토론을 통해 코로나 시대 소규모기업의 자립 방안과 일자리 및 도시재생 분야 그린 뉴딜 추진 방향 등에 논의한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올해 6회를 맞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양극화 해소, 환경보호 등



전주시와 로컬푸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4일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무관중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 연대와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코로나19 시대가 앞당긴 지역의 과제들을 전주를 포함한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고자 이번 국제회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독서대전 온라인으로 즐겨요"

### 시, 온 가족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 비대면 방식 운영

전주를 대표하는 책 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단위로 안전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020 전주독서대전의 프로그램 중 그간 행사 현장에서 진행해온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 ▲가족 독서골든벨 ▲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먼저 어린이들의 독서생활 습관과 독후표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15회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는 500명의 어린이가 지정도서 중 본인이 좋아하는 도서 1권을 읽고 우편을 통해 독후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회는 ▲독후화 그리기 2개 부문(5~7세, 초등 1~2학년) ▲독후감 쓰기 2개 부문(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올해는 안전을 위해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jbook.kr)를 통해 사전 접수한 어린이에게 용지 꾸러미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완성된 독후화·독후감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김윤상 기자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은 가족 독서골든벨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사전 접수를 통해 2인 이상 가족 15팀을 모집한 다음 참여가족은 줌(ZOOM) 앱을 활용해 가족 독서골든벨에 참여하고 시청하는 시민들은 이번 주제에 참여토록 하는 등 생방송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온 가족이 함께 ▲전주 올해의 책 3권의 도서 ▲전주 및 도서관에 관한 상식 ▲난센스 문제 등을 풀게 된다.

끝으로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은 ▲모여라! 책 읽는 TV로 ▲나만의 다음책 만들기 ▲온가족 다함께 보드게임 ▲잡으로 즐기는 타악놀이 체험 등 4가지가 준비됐다.

나만의 다음 책 만들기와 온가족 다함께 보드게임은 총 200가족을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이는 체험할 수 있는 키트 및 보드게임을 우편으로 발송해 집에서 편리하게 독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jbook.kr)를 통해 사전 접수한 어린이에게 용지 꾸러미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완성된 독후화·독후감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비대면 집콕놀이 영상 공모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춰 전주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는 오는 8일까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혼자 놀기의 아이디어 동영상 만들어 제출하면 우수작을 선정해 소정의 시상품을 전달하는 '집콕놀이 내가 혼자놀기의 레게노다(레게노=레전드)' 공모전을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jonjuvc.or.kr) 접속 후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예시로 제작된 놀이영상 콘텐츠를 본 후 90초 이내 동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명에게 갤럭시 버즈플러스(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오즈모모바일(짐벌), 무선키보드 등 다양한 선물이 제공된다. /김윤상 기자

## 효천지구~삼천동 잇는 교량·모꼬지공원 명칭 공모

### 전주시, 14일까지 실시

전주시가 효천지구와 삼천동을 연결하는 교량의 이름을 공모한다. 또 효천지구 내 근린공원인 모꼬지공원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명칭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효자동 효천지구 리버클래스와 삼천동 강변공원을 잇는 삼천횡단교량(가칭)의 명칭을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와 역사·문화적 특성에 부합하게 짓기 위한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효천지구 일대의 교통망을 분산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주효천 삼천횡단교량 건설공사'는 내년 4월까지 주변도로 여건과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해 길이 126m, 폭 36~43m, 왕복 6차로 규모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교량에는 차도와 보행로는 물론 효천지구 입주민과 인근 삼천동 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영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량 남



효천지구 삼천횡단교량 조감도(야간).

측에 9.5m 폭의 광장형 보도가 들어오고, 북측에는 5.5m 폭의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천지구 내에 조성된 근린공원인 모꼬지공원도 이번 명칭공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할 계획이다.

명칭 공모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홈페이지(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공모제안서에 명칭을 작성해 이메일(jc889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제안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과를 오는 10월 18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명칭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은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김윤상 기자

## 농생명·식품 분야 중소기업 지원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16일까지 기업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전주시가 도내 농생명·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도우미로 나선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최명규)은 오는 16일까지 농생명소재·식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성분분석 9건 ▲시제품제작 1건 ▲제품고급화 3건 ▲인증 지원 3건 ▲기술이전 1건 ▲수출지원 1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전담 기술닥터로부터 1:1 현장 컨설팅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업체 전체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제품 및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의 경우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성분분석은 총 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인증지원의 경우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지역 농생명·식품 및 이너뷰티 관련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업체는 연구원 홈페이지(www.jami.re.kr)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작성해 신청기한 내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인 RIPS(www.ri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구원은 접수된 기업에 대한 대면·현장실태조사 및 서면평가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강열 원장은 "연구원은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농생명·식품 기업에 기술닥터 지원, 생산제품의 고도화와 제품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